

보건소 소식

‘셀프백신 손씻기’ 사업 본격 추진

설문조사결과 ‘30초 미만 씻는다’ 79%

부산진구보건소(소장 이경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손씻기 행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셀프백신 손씻기로 감염병 OUT!’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손씻기가 감염병 예방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는 응답은 97%에 달했다.

특히 ‘화장실 이용 후 손씻기’는 99%로 나타나 손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는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손을 씻을 때 엄지손가락,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 세부 단계에 대한 실천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씻는 시간이 30초 미만이라는 응답이 79%에 달했다.

보건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참여



형 손 위생 실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셀프백신 손씻기 체험교실 ▲초·중·고등학교 대상 셀프백신 우리반 손씻기 실천 캠페인 ▲우리동네 셀프백신 손씻기 캠페인 등이다.

한편, 부산진구보건소는 체험 중심 교육을 강화할 위해 손씻기 교육기구(부박스) 및 교구 무료 대여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부박스는 형광로션을 활용해 손씻기 전후 세균 오염 부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장비로,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및 대여신청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계(605-6082)

‘결핵예방의 날’ 홍보 주간 운영

부산진구보건소는 3월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3~29일까지 7일간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한다.



- 운영 목적 :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리 중요성 전파
- 사업 내용 : 리플렛과 다양한 물품으로 홍보, 시행 중인 △보건소 내소자 무료 결핵검진 △찾아가는 결핵검진 서비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등 체계적인 결핵 사업 홍보
- 결핵 검진 : 흉부X선 촬영과 객담검사
- 상세 문의 : 부산진구보건소 결핵관리실, 보건행정과 검진계(☎ 605-6074)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모집

- 사업 목적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주민 건강 관리 돕고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
- 모집 대상 :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110여 명(※ 만성질환 약물 비복용 부산진구민 또는 부산진구 소재 직장인)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31일(화)까지 선착순
- 참여 방법 :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계(☎ 605-5948) 사전 예약 후 방문 건강검진
- 사업 내용 : 6개월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손목 밴드 이용, 개인 건강생활 실천 정보 실시간 수집, 건강·영양·운동분야 전문가 1:1 맞춤상담 서비스 제공, 3회 방문 건강검진

‘결핵예방의 날’ 홍보 주간 운영

부산진구보건소는 3월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3~29일까지 7일간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한다.

- 운영 목적 :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리 중요성 전파
- 사업 내용 : 리플렛과 다양한 물품으로 홍보, 시행 중인 △보건소 내소자 무료 결핵검진 △찾아가는 결핵검진 서비스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등 체계적인 결핵 사업 홍보
- 결핵 검진 : 흉부X선 촬영과 객담검사
- 상세 문의 : 부산진구보건소 결핵관리실, 보건행정과 검진계(☎ 605-6074)

백양가족공원

운동교실(일오오공) 운영

- 행사 내용 : 15분 도시사업 일환, 주민 대상 50분간 운동(1550)
- 참여 대상 : 별도 모집 기간 없이, 해당 시간 참석 가능 주민 누구나
- 운영 기간 : 2026년 4월 6일~6월 29일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 하반기 9~11월 동일 시간대 예정
- 운동 종목 : 전문 지도자 주도로 전신 스트레칭, 근력 향상 및 유연성 증진활동, 부담없는 신체동작 배움.
- 문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계(☎605-6119)

보건소-범천2동 연계 독거어르신 ‘목도리 나눔’ 훈훈

하하마을건강센터 우울·치매 동아리 ‘매화꽃’ 나눔 활동

부산진구보건소 범천2동 하하마을건강센터 소속 우울·치매 예방 건강동아리 ‘매화꽃’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동아리 ‘매화꽃’은 우울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후 운영되는 자조모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 확대와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은 자조모임 4회와 월 1회 정기회의로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어르신들은 겨우내 정성을 담아 손수 뜬 목도리 20개와 수세미 20개를 지난달 완성했다. 이를 범천2동 주민센터 복지팀과 연계해 설 명절을 맞은 지역 내 취약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동 주민센터 복지팀과 함께 대상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동아리 참여 어르신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뜨개질을 하니 우울감도 줄고, 우리가 만든 물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범천2동 마을건강센터 관계자는 “우울·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문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계(605-6108)